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에서의 자녀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 개신교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A Qualitative Study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s in Children's Educ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Protestants

지상선 (Sang-Sun Ji)**

현은자(Eun-Ja Hyun)***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experience of education children of mothers escaping from North Korea.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10 mothers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The data were constructed by conducting one-on-one in-depth interviews. The researchers analyzed according to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ground theory suggested by Strauss and Corbin (1998).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open coding, 13 categories, 32 subcategories, and 124 concepts were derived. In axial coding, the causal condition appeared as fear of exclusion from the center that forced assignment of the status on the people around, the causal condition appeared as fear of exclusion from the center and forced assignment of the status on the people around, the phenomena appeared as psychological to go back to the past and artificial oblivion of reality in self-concealment, and the contextual condition appeared as distrust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alienation from the private education, fading hope, people around the education and cultural impact. And the intervening condition appeared as minority solidarity and Protestants community help, Action/interaction appeared as a challenge in optimistic expectations and capitalization of strong vitality, and finally the consequence is categorized as possibility planning.

* 2021년 8월 19일 접수, 2021년 9월 10일 최종 수정, 9월 13일 게재 확정.

**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아동청소년학과 박사수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moathink@hanmail.net

***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전임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hyunej6029@gmail.com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that the support and sponsor of the church played a major mediating role in that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overcome educational failures and frustrations before dreaming a new dream.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researchers discussed the church's support and specific approaches to the educ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children.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Children Education, Church Community, Cultural Heterogeneity, Human Capital

I. 서론

현재 한반도에는 21세기 판 출애굽(exodus)이라고 할 정도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거 입국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극심한 기아와 경제난을 피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2020년 3월 기준 총 33,658명이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다(통계청, 2021). 북한이탈주민들은 단신으로 월남하여 한국에 먼저 정착한 후 자녀들을 불러드리거나 청소년들의 단독 탈북 등의 유형으로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과의 문화적 차이, 부모와의 관계, 남한 주민들의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이 원인이 되어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 적응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윤나, 2010: 90; 김영하, 2010: 223; 백인옥, 2020: 53). 북한 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적응과 함께 자녀의 적응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단지, 북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족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정윤경 외 (2015)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주민들로부터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차별 경험은 그들의 자활 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주민들의 고정관념이자 문화적 지체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남북 분단의 결과일 수 있다. 남과 북은 오랜 분단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군사적 대치와 충돌, 서로 간에 적개심을 갖는 사회적 정서가 최근까지 이어오고 있다. 사상 역시 남한 주민들은 반공 이념을 사회화했지만 북한은 주체사상을 사회화했다. 이렇듯 적개심과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에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해묵은 이질적 감정이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ebastian & Kim, 2008: 161-163). 그런데도 우리는 통일을 지향한다. 통일은 외세에 의하여 훼손된 민족 국가로써 정체성 일치의 회복뿐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에 기초한 화해와 수용이다(Grinker, 1998:118-120).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잃어버린 형제로 간주하고 그들을 우리 사회에서 포용해야만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북한 정권의 독재와 경제적 위기, 인권 탄압 속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했고 생존을 위해 탈출했지만, 남한 사회에서도 소수자의 위치에 서서 낙인과 편견이라는 또 다른 트라우마를 경험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한 과정 자체가 혹독한 트라우마 그 자체라 할 수 있다(김규보, 2020: 9). 개신교 교계에서도 이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긍휼과 사랑의 실천적 접근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많은 연구 중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교육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북한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한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모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의 부적응과 그들의 이탈은 남한 사

회에 진입하기 위한 통과의례와 성장통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문제를 수준이 낮은 부모의 역할 또는 비행과 부적응으로 접근하는 연구 경향도 있다(김윤나, 2016: 54-55; 장정숙, 2021: 700-707).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자녀교육의 의미는 생애 과업이다. 외국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주민 자녀의 교육은 자녀들의 자아 효능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을 획득하게 하여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Karoly & Gonzalez, 2011:71). 북한 이탈주민과 같은 이주민들은 이주한 사회 내에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인적 자본도 취약하다. 이주민들이 모국에서 취득한 경험과 기술은 많은 경우 이민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들의 사회적 기술은 저하되고 임금수준도 낮아지게 된다(Lancee & Bol, 2017: 709-711).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교육이다. 교육은 이주민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주민 부모의 정서적 치유의 기회와 긍정적 양육 전략은 그들의 창조적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이주민들의 자녀들의 성장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자녀들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사회 적응에 필요한 자원을 주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Yuen, 2019: 12-13). 이렇듯 북한 이탈주민 자녀 그리고 교육의 하나의 큰 틀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사회에 진입한 후 다양한 사회적 만남을 경험한다. 사회적 만남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모든 개인에게 있어서 만남은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에게 기독교와의 만남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통과의례 수준이 아니라 탈북 과정에서 생성된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남겨진 가족에 대한 걱정과 불안, 낯선 사회의 적응 문제, 불행한 삶의 역사에 매여있는 현재의 상태를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제공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만남은 새로운 삶의 레토릭이라고 할 수 있다(한정우, 2016: 134).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의 진입 후 그들이 경험한 기독교의 만남에서 그들의 적응과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 선행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와 학력 결손(김윤나, 2013: 2-3),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기질적 특성과 환경과의 갈등(김윤나, 2012: 119-121),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과 해결방안(백인옥, 2020: 53),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과정(정다운, 김병수, 2019: 29), 북한이탈 청소년 대학진학 준비 경험(정영선, 이승연, 2020: 721) 등이 존재할 뿐 북한이탈 주민 자녀들의 교육을 개신교적인 맥락에서 다룬 질적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녀의 남한 입국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유아기 때부터 교육에 대한 열의가 나타난다. 북한은 무상교육 시스템을 제도적 장치로 구축했고 모든 주민에게 무상교육을 해 왔다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당 간부와 특수계층 그리고 일반 주민들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김예영, 2012: 27-30)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입국한 후 교육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

고 있다. 하지만 남한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과 같은 불행한 삶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자녀교육에 열중하지만, 남한 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따라가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김미정과 정계숙(2007: 90-92)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주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학습하고 자신들의 자녀가 또래들과 비슷하거나 우월한 학습 수준을 갖길 원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교육적 이질감에 따른 격차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이윤진 외(2012: 3) 연구에 의하면 자녀 학습지도의 고충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는 한글과 외래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자녀들이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했다. 높은 교육열과 함께 사교육 경쟁도 학습한다. 무상교육 체제에서 살아 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매우 생경하다. 홍주은(2003: 79-81)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의 높은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 그런데도 자녀 교육에 모든 희망을 걸었기에 어려움을 감내하며 자기 삶의 에너지를 자녀 교육에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적응은 탈북 동기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경제적 목적에 의하여 탈북한 사람들은 심리적 적응이 낮게 나타나지만, 자신의 꿈과 자녀의 교육 등 미래 지향형 탈북 동기를 지닌 사람은 심리적 적응이 높게 나타난다(정정에 외, 2013: 215). 북한이탈주민들은 단순한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동기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은 그들의 지상 과제가 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남한의 사교육 문화와 치열한 경쟁 등은 낯설고 두렵고 때로는 남한 사회에 온 것을 후회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김윤나, 2014: 81-84). 또한 정병호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과는 다른 교육 시스템의 어려움, 부모가 북한이탈 주민임이 밝혀져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교사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등이 고충으로 제기되지만(김윤나 2014: 78, 재인용),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원인 중 가장 강력한 생존 욕구에서 벗어나 다른 측면으로 전이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의 만족감과 자부심이었다(김미정, 정계숙 2007; 90). 이들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 동기에 있어서 자녀의 교육은 자신과 자녀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과정이자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자녀 경험에 관한 소수의 질적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의 진입이 수월하지 않음을 체감하고 자녀교육이란 현실에 부딪힌다. 홍승아(2013: 190)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공통의 문제는 자녀교육의 어려움이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물적 토대가 열악하고 교육 자본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학습 의욕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북한의 서로 다른 시스템과 처음 접하는 학과목과 특기 교육 등으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김윤나, 2013: 2-4). 특히 자녀들이 또래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이러한 우려는 김현철 외(2015: 171-172)의 종단 연구에서 보고되었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녀가 탈북자 자녀라는 사회적 낙인을 받지 않게 하려고 탈북자 가족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은폐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어진다. 하지만 남한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후일, 외부로부터 탈북자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 큰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혼란을 겪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학생들과는 또 다른 발달 진통을 치른다. 그러나 난관의 극복 과정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한다(장정은, 최정숙, 2015: 404).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남한의 제도과 문화 이해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 고충을 겪지만, 주변의 도움과 본인의 노력을 통해 난고를 극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교육과 같은 전문 프로그램 참여가 지지적 요인이 될 수 있다(김성남, 양옥경, 2015: 5).

지금까지 연구 주제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 중 사교육과 대학 입시에 경도된 교육 시스템 등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장기간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문화적 이질성과 경제적 부담 그리고 자녀교육과 소통의 문제 등은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자녀교육 어려움과 교회의 지지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서의 교육 경험과 교회와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교육 경험을 근거자료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의 어려움과 함께 교회의 개입과 지지 등이 북한이탈 주민과 자녀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자녀 교육 경험의 어려움을 생생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개신교 선교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논의와 제언을 도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자녀교육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 방법으로 선정했다. 이론적 표집이란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전형적인 표본 추출 방법으로써 자료 수집을 종료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참여자 선

정과 자료수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특히 이론적 표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기준으로 한다, 즉 인터뷰를 수행하고 자료를 분석한 후 개념을 도출한다. 그리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또 다른 개념을 밝힐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개념이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론적 표집은 자료 수집 방법인 동시에 자료분석 방법이다(Glaser, 1992). 이렇게 분석하여 도출된 개념을 통해 다시 연구 질문을 구성한 후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다(Corbin & Strauss: 2015: 138-160). 연구자는 첫 번째 연구참여자의 만남에서 구술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하였고 그들의 경험 속에서 사교육 부담이란 개념을 도출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사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의문을 품고 중위 소득 이상인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 참여자 수는 모집단의 규모, 연구자의 연구 주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근거이론의 경우 10명에서 20명 사이를 선정한다(김창희, 2017: 59-60; 정국인, 2014: 31-33). 특히 Kuzel(1992: 22-54)은 동질적 집단의 경우에는 8-10명, 이질적 집단이면 12-20명 정도를 권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 참여자들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이고 개신교이며 어머니라는 동질적 집단이기에 10명의 연구참여자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Table 1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구분	연령	한국거주기간 (북한거주기간)	교육수준	학교급별	자녀출생지	세례교인여부
연구참여자1	30대	7년(24년)	고졸	초	남한, 중국	세례교인
연구참여자2	40대	4년(26년)	전문대3년졸	유, 중	중국, 북한	세례교인
연구참여자3	40대	2년(40년)	고졸	고	북한	세례예정
연구참여자4	40대	2년(21년)	고졸	초	중국	세례교인
연구참여자5	40대	10년(20년)	대학졸	중, 고	중국	세례교인
연구참여자6	40대	8년(27년)	전문대 2수료	초, 중	중국, 북한	세례교인
연구참여자7	50대	18년(34년)	고졸	대	북한, 중국	세례교인
연구참여자8	50대	7년(20년)	고졸	고	중국	세례교인
연구참여자9	40대	2년(21년)	고졸	초	중국	세례교인
연구참여자10	40대	10년(25년)	고졸	고, 대	중국, 북한	세례교인

(2) 자료수집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과 1:1 심층 면접을 수행하여 구성했다. 질적연구 심층면담에서는 구조화된 질문지, 반구조화된 질문지, 비구조화된 질문지로 접근하는데 Corbin과 Strauss(2015)에 의하면 근거이

론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하는 구술 자료와 다양한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구조화된 면담이 적절하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연구자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구조화된 면담을 수행했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했고 이를 문자본으로 전환하여 원자료(raw data)로 삼았다.

(3) 근거이론의 자료분석

근거이론 연구에 근거이론의 자료분석 특징은 코딩이다. 코딩은 자료를 분해하여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Corbin과 Strauss(2015)는 개방코딩, 선택코딩을 제시했으나 그의 초기 저서에서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으로 자료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자들은 원 자료를 분해하여 줄 단위 분석으로 개념을 구성했고 이를 하위범주, 범주로 구성했다. 그리고 개방코딩에서 구성한 범주들을 축코딩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현상(phenomenon),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action/ interaction) 그리고 결과(consequence)의 패러다임 모형에 재배열하여 범주 간의 관계를 정렬했고 참여자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선택코딩에서는 핵심 범주를 제시하여 모든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통합하는 새로운 범주를 제시했다.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문제

① 연구자의 엄격성

연구자는 근거이론 연구의 엄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Liebow(1993)가 제시한 장기간에 걸친 라포르 형성,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동료 지지 집단의 구성, Denzin(1978)이 제시한 다원화 전략, Padgett(1998)이 제시한 연구참여자를 통한 확인 전략으로 접근했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일 년 이상 관계를 유지했다. 장기간에 걸친 이러한 라포르 형성은 연구자의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참여자들의 반응성과 인위적 회피 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둘째, 연구자는 북한 이탈 주민 실천가 중 교육과 북한 이탈주민의 삶을 지원하는 실천가 1인, 근거이론 연구를 다수 수행한 연구자 1인을 동료 지지집단으로 구성했다. 동료지지집단은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을 예방하고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자료분석과 기술을 종료 한 후 연구자들과 다시 포커스 그룹(FGI) 형태의 모임을 했고 연구 결과를 제시한 후 그들의 의견을 구했다.

② 연구의 윤리적 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사생활과 비밀 보호를 위해 연구자와 관계된 모든 사항은 익명 또는

부호로 표시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한 후 서면 동의를 구했다. 셋째, 연구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음을 문서로 보장했다. 넷째, 연구참여자가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을 고지했다.

III. 연구 결과

1. 자료의 범주화 : 개방코딩(open coding)

개방코딩은 원자료를 분해하여 개념, 하위범주, 범주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들은 원자료를 줄 단위 분석(line by line)하여 개념 124개, 하위범주 32개, 범주 13개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을 인과성과 유사성 차원에서 재결집하여 보다 추상화된 수준에서의 하위범주를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하위범주를 또 다시 결집했고 추상화 수준을 높여 범주를 구성했다. 개념, 하위범주, 범주의 목록과 그 관계는 <Table 2>와 같다.

이와 같이 구성한 범주들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인과적조건(causal condition), 맥락적조건(contextual condition), 현상(phenomenon), 중재적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action/ reaction)그리고 결과(consequence)의 패러다임에 범주 간의 관계를 정렬했으며 참여자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제시했다.

Table 2. The Results of Categorization of Data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중심부 배제로 인한 주변인 지위	학력 피로사회	모두가 대학을 가야만 하는 한국은 학생 모두가 피곤한 사회
			북한에서 기아와 고통보다 남한에서 교육이 더 어려움
			대학이 인생을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 우리 아이는 이미 낙오자
			북한은 출신 성분, 남한은 대학이 미래를 결정하기에 남이나 북이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
		경쟁 스트레스	경쟁은 필요하지만 너무나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고 안쓰러움
			남한의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치열한 전쟁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나의 아이는 경쟁력이 떨어짐
			북한에서는 스스로 공부하라고 교육했지만, 남한에서는 억지로라도 공부하라고 가르침

인과적 조건	중심부 배제로 인한 주변인 지위	소통의 격절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위축을 우려하고 학부모 모임에 나가지 않음	
			학부모 모임에서 과외 학원 자랑하는 엄마들 때문에도 다시 상처를 받음	
			학부모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이 교육보다 자동차 아파트 월급 이야기	
		탈북민 낙인	아이들에게 낙인을 줄 것을 우려하려 강원도에서 태어났다고 거짓말함	
			자녀에게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며 북한 출신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교육함	
			아이에게는 북한 출신을 숨겼지만 아이는 이미 알고 있음	
	북한 학생 특별전형이 있지만, 원서를 쓸 때까지 불이익을 염려하여 말하지 않음			
	임대주택에 산다고 하여 멸시받는 자녀들			
	자녀에게 북한 출신을 숨겨야할 때의 참담함			
	현상	과거로의 회기 심리	현실부정 차원의 회귀 소망	자녀 교육만큼은 돈이 들지 않는 북한에서 시키고 싶은 마음
				돈 없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
				자본주의 사회의 실상을 모르고 온 것에 대한 실망
배가 고파도 공부에 목숨 걸지 않았던 북한이 그림자라고 말하는 자녀				
편견 피해 경험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남한 사람들은 가정교육을 들먹임		
		남한 가정보다 가장 교육을 잘 시켰지만, 학교 부적응을 모두 가정 교육 탓으로 돌리는 교사		
		자녀가 노력하여 좋은 성적을 내자 개 밭에 땀났다고 놀리는 아이들		
		탈북민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자녀는 남한 학생들의 정원을 깎아 먹는 존재		
부모의 존재 감추기		담임교사 상담 요청이 있어도 아이는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함		
		북한 출신 엄마가 창피하다고 학교에 오지 말라는 아이		
		남한 학생들에게 치이고 성적이 떨어진 자녀는 남한으로 자신을 데리고 온 부모 원망함		

	인위적 현실망각	지지 이면의 낙인	북한 출신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
			북한 출신 특별전형은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낙인
			북한 출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아이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함
		역지 위안과 희망	공부 이외도 다른 길이 있다고 위로했지만 생각해 보면 다른 길이 없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위로하지만 자기변명에 불과함			
맥락적 조건	부모-교사 간의 불신감	학생인권 과잉	학생들에게 휘둘리는 교사에 대해 실망함
			북한에서는 학교가 엄마라고 가르쳤지만, 남한에 교사들은 아이에게 잘해주는 데만 신경씀
			때려서라도 아이를 교육하면 좋겠지만 남한은 내버려둠
			학교에서 아이의 습관을 잡아 줄 것을 기대했지만 버릇없는 아이로 만드는 학교
			학생 인권만 강조하는 학교는 인성 교육은 뒤로 처짐
			가족을 생각하던 자녀도 남한 학교에 온 후 이기적으로 변함
	존중받지 못하는 교사	학교발전 모임이 교사 성토장으로 변함	
		교사 덕분에 아이의 생활이 바뀌었다고 하자, 부모들은 입을 닫음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학부모들에 대한 실망	
	사교육 소외	사교육 지상주의	학교는 뼈대를 알려주지 않고 살만 알려주며 부족한 것은 학원에 의지함
			남한에서는 학교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사교육이 해결함
			공교육은 사라지고 학원이 자녀의 장래를 결정하는 구조
높은 사교육 문턱		학원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아 학교 교육에 충실할 것만 요구함	
		자본주의 사회에 오니,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됨	
		학원을 가고 싶어도 돈 때문에 눈치 보는 아이들	
		복지는 잘되어 있지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힘들	
		남한 엄마들은 유치원 따로 학원 따로 보내 한글을 떼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학원처럼 배우는 어린이집을 선택	
		북한은 학교 보내는데 경제적 부담이 없음	

맥락적 조건	높은 사교육 문턱	학원을 보내고 싶지만,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마음만 아픔	
		학교보다 학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학교에서 학원 보낼 돈이 없음	
		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한 것을 알면서 교과서에 충실 하라고 할 때의 아픈 가슴	
		남한에서 자유는 얻었지만, 돈을 얻지 못해 아이 공부를 충분히 시킬 수 없음	
		다문화 대안학교에 정을 붙이고 있지만, 원적 학교와는 점점 멀어짐	
	멀어지는 희망	생계 교육 방임	투잡, 야근까지 하며 생활을 했기에 자녀들은 스스로 자기 일을 처리함
			일에 지쳐 집에 오면 아이의 공부를 봐줄 시간이 없음
			생활에 쫓돌리고 지쳐 자녀를 돌볼 여력이 없음
			자녀 돌봄과 교육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함
			생활고 때문에 자녀의 공부는 후 순위
		우울한 자녀의 장래	중학생이 되었지만 로마자 알파벳도 모르는 아이로 인해 걱정이 태산임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 시장에서는 도태될 것 같은 느낌
			부모의 인맥이 없기에 도움 없이 살아가야만 한다는 예감
			결혼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불안감
			탈북민 낙인이 자녀와 손자와 대물림될 거라는 예측
희망의 퇴색	공부 못하는 아이, 북한 출신이라는 이중의 낙인으로 꿈을 잃어가는 자녀		
	모진 노력을 해도 남한 학생들을 따라잡지 못하자 더욱 좌절하는 자녀		
	초기의 부푼 꿈은 사라지고 자녀들은 희망을 잃어감		
교육 주변인	출발선이 다름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떼고 들어가는 남한 학생들과는 격차가 발생	
		선행 학습을 하는 남한 학생들을 쫓아갈 수 없음	
		북한과 중국에서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력도 학력 신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	
		기초학력이 부족하기에 두 배 세배 노력을 해도 따라가기 힘들	

맥락적 조건	교육 주변인	교육 계통에서 살기	학교 적응이 어려워 대안학교를 보냈지만 이를 배려보다 배제로 생각함
			대안학교에 다니며 일주일에 한 번 본적 학교로 오는 아이, 같이 밥 먹을 친구조차 없음
			다문화 대안학교에 정을 붙이고 있지만 원적 학교와는 점점 멀어짐
			북한 출신 대안 학교에 보냈지만, 유배 보내는 느낌
			대안학교에 다녔으니 대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대안학교는 공부보다는 적응에만 중점을 두기에 오히려 퇴보함
문화적 충격	교육 시스템의 지체	중국, 북한, 남한의 교육 방식이 다르기에 자녀는 혼란스러워함	
		자신이 북한에서 받은 교육방식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없음	
		남한 엄마들의 교육 방침을 따라가고 싶으나 뱀새가 황새 따라 갈 수 없는 법	
	과거의 학습 유산 버리기	북한에서 배운 모든 공부는 한국에 온 순간 모두 쓸모가 없어짐	
		사회주의 사상, 주체 사상은 남한에서의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중재적 조건	소수자 연대	탈북자 공동체 지원	탈북민 출신 대학생이 스스로 과외를 자청함
			탈북민 교육 정보 공유
			남한 학생들에게 따돌림당해도 탈북학생들끼리는 멍치고 단결하여 주체성을 세워감
		동병상련의 상호지지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과 서로 도우며 자녀의 공부를 걱정함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이웃이 도움이 되고 자녀의 공부를 봐줌		
	자녀가 벗어나고자 할 때 바른길을 인도하는 이웃		
	개신교 공동체의 도움	교회의 돌봄	돌아온 형제로 대우하는 교외에서 사랑을 배움
			교인들의 도움으로 적응과 공부에 자신감을 얻어감
			남몰래 간식을 건네주는 사모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용기를 찾음
		교회 교사의 배려	편견 없이 무조건 지지를 하는 교사로부터 용기를 얻음
탈북민에 '탈' 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교사			
예배가 끝난 후 일부러 불러 학습을 지도하는 정성			

작용 /상호작용	낙관적 기대속의 도전	긍정적 피드백 주기	아이의 꿈을 꺾다가 인정을 해주자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뀜
			낙심하는 자녀에게 북한보다는 좋다고 격려함
			공부보다는 인성이 좋아야 한다는 지속적 교육
			남한 아이보다 공부는 떨어지지만, 생존력은 앞서간다고 교육함
		한계 속에서 방향수정	중국에 있을 때는 남들보다 앞서가길 바랐지만, 한국에서는 자신의 꿈을 키우기 바람
			열여섯 살 때, 남한에 왔기에 한국 학생들을 따라잡을 수 없어 실업계 고등학교로 옮길 대학의 꿈을 접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권유함 남한 아이들과는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북한으로 돌아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함
	경쟁력 틈새 영역개발	수학 국어는 못 해도 중국에서 성장해 중국어는 잘하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남한 학생들이 기피하는 영역에서 자립할 준비	
		통일을 대비하여 자본을 모음	
	강한 생명력의 자본화	사선을 넘은 용기의 소환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기에 남한에서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님
			어려울 때마다 중국에서의 공포를 떠올리고 그것이 힘이 됨을 느낌
			총살당하지 않고 한국까지 왔으니 공부도 이길 자신이 있음
축적된 인내심		북한, 중국, 한국에서 닦은 인내심은 공부 낙오자라는 낙인을 벗어 버릴 수 있음	
		인내는 쓰지만, 그 인내를 여러 번 했기에 성적이라는 열매를 맛볼 자신감	
		공부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하지만 어려움을 이겼기에 또 다른 자신감	
		남한 학생을 추월하기가 어렵지만, 지금까지 이겨낸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	
내핍생활을 통한 인성교육		남한에서 생활이 어렵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역시 또 다른 공부	
		학교 공부는 뒤처지지만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음	
	젊어서 가난은 돈 주고도 산다는 말처럼 절약하는 습관을 통해 더 큰 나무로 성장시키고자 함		

결과	가능성 기획	예단 내려 놓기	자녀의 미래가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으로부터 탈출
			성공도 실패도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
			흙수저가 금수저는 될 수 없어도 닭으면 스테인리스 수저는 될 수 있음
		개방적 생활 양식	아이들에게 오히려 배우고 일에 대한 불안을 머릿속에서 삭제함
			남한 사회는 북한보다는 희망 있는 삶의 장이라는 인식
			꿀찌도 역전할 수 있다는 사고의 촉진

(1) 인과적 조건

중심부 배제로 인한 주변인 지위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를 학력 피로 사회로 의미를 구성했다. 대학이 인생을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 연구참여자의 자녀들은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북한에서 경험한 기아의 고통보다 남한의 교육이 더 어렵다는 구술을 했다. <연구참여자 3>은 대학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중요해요. 나는 토대가 나빠서 대학도 못 갔어요. 남한에 오니까 토대는 없어졌는데, 대학이 미래를 결정하잖아요. 힘든 것은 어디 가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를 대학 입시 위주의 경쟁으로 분석하는 관점이 많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남한의 교육을 치열한 전쟁으로 묘사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힘들어하는 자녀를 볼마다 안쓰럽지만, 강압적으로 공부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남한은 경쟁 사회니깐 거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남한 아이들은 경쟁 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경쟁력이 없어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단순히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위축되었다고 했다. 자신들 역시 학부모 모임에는 참여를 꺼렸다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학부모 모임은 자녀 문제와 학교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하기 보다는 서로 자랑하기에 바빴고 특히 과외와 학원을 자랑하는 부모들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했다. 고비용의 사교육과 학원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연구참여자들에게 학부모 모임은 패배감을 다시 확인하게 했고 이로 인해 학부모 모임과 거리를 두었다.

“부모 모임에서는 늘 그래요. 자기 자랑만 하니까, 화가 나지만 돈이 어마 무시하게 들어가니깐 우리는 근처도 못가. 열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학부모 모임은 가기가 싫지.” (연구참여자 9)

북한이탈 주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본인의 물론 자녀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낙인이 따라왔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게 북한 출신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교육했고 <연구참여자 1>은 부모의 말투가 강원도 말투와 비슷해서 강원도 출신이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이러한 가장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에게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숨길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고 참담함까지 느꼈다고 했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임대 주택에 살고 있기에 아파트 이름과 동호 수 등이 노출된 상태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탈북민은 그 자체가 낙인이라고 의미를 구성했다.

“임대 주택에 사니깐 고맙고 한국 사람들도 임대주택에 살기가 어렵잖아요. 고마운 건 있는데 또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어디 어디 산다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쪽에 많이 사니깐…; 아! 탈북민이다! 애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친구들도 그렇고 다 멸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술 취한 사람에게 너희 나라로 가라!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연구참여자 5).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자녀들은 경쟁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대학은 물론 직업 선택까지 영향 받을 것을 우려하여 한국 사회에 중심부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함을 나타냈다. 한국에서 주변인 주위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여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중심부 배제로 인한 주변인 지위로 범주화했다.

(2) 맥락적 조건

① 부모-교사 간의 불신감

사교육을 충분히 시키지 못하는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와 같은 공교육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학교는 인성 교육은 부재하고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휘둘리는 것으로 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사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학생과 학부모 눈치만 보는 구조 속에서 인성교육은 후 순위가 되었다는 의미를 구술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자기보다는 가족, 사회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남한에 오니깐 애들도 자기만 알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학교에서는 교사도 애들에게 휘둘리고 그놈의 인터넷인가 뭔가 때문에 우리 애들도 내 새끼도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떤 땐 괜히 왔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학교를 엄마, 선생님은 아버지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 교사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초창기 학부모 모임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6>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교사에게 험담만 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남한 학교에 실망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4>는 학부모 모임에서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애가 생활 태도가 바뀌었어요.”라고 이야기 하자, 부모들은 교사를 칭찬하기보다는 입을 닫았다. 학부모들에게 교사는 만만한 존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교육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우리 아이가 생활 습관이 안 좋았어요. 이도 잘 안 닦고 그러니깐 학교 가서도 따돌림받을 게 뻔하지. 선생님이 잘 가르쳤어요. 우리 애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깐 ‘아, 훌륭한 선생님이구나!’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나를 뻔히 쳐다보더니 말을 안 해요.” (연구참여자 4).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기대했던 공교육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부모-교사 간의 불신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교사 간의 불신감으로 범주화했다.

② 사교육 소외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한국은 사교육 왕국이다. 공교육은 이미 사라졌고 학원과 과외 등이 아이의 장래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모든 연구참여자의 경험은 모든 남한의 학생들은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들을 비롯한 교육 소외 계층은 점차 비전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구술했다.

“남한에 진짜 학교가 필요할까? 다 학원에서 배우는데…;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 말씀을 더 무섭게 알고 찢찢 매. 학원도 계급이 있잖아. 잘 가르치는 데는 엄청 비싸고 우리들은 보내도 싼데 밖에 못 보내니깐…”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복지는 잘 갖춰져 있지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에 힘들음을 토로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고액 학원에 보낼 수 없어 학교 교육에 충실 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지만 그것

이 허망함을 곧 알게 되었다. 자녀들은 학원에 가고 싶지만 돈 때문에 엄마의 눈치를 보고 남한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돈을 얻지 못해 아이들을 충분히 공부시킬 수 없다고 구슬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사교육이 대학 입시와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는 구조 안에서 교과와 학교에 충실 하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 아픈 경험을 했다.

“남한에 오면 1년도 안 돼서 다 알아요. 여기서 돈이 최고지. 머리 좋고 열심히 노력해도 한계가 있죠. 근데 돈이 없으니깐...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책 열심히 보면 공부 잘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아들내미는 착해서 믿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하고 있구나... 누군들 학원에 안 보내고 싶겠어요. 자부담이 어려운데...” (연구참여자4).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사교육이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를 사교육 소외라고 범주화했다.

③ 멀어지는 희망

북한 이탈 주민들은 초기 정착금, 임대주택, 직업 알선, 한시적인 기초생활수급 지위를 보장받지만, 그것으로 한계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인적 자본이 취약하고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투잡 또는 쓰리 잡을 하는 연구참여자, 야근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특히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야 하는 연구참여자들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의 돌봄과 공부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생활고로 인해 교육의 방임으로 이어졌다.

“남한에 온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살라고 온 게 아이예요. 북한에 있어봤자 앞날이 밝하니깐. 근데 여기서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고, 북한에 두고 온 애가 하나 있는데 북에 있는 엄마에게 생활비도 보내야죠. 근데, 100만 원 보내면 엄마한테 가는 건 40만 원, 50만 원 밖에 안 돼요. 중간에 브로커가 다 떼 먹어요. 공부는 시켜야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연구참여자 10).

모든 연구참여자는 자녀의 장래를 생각할 때마다 우울함에 빠진다고 했다. 중학생이 되도록 로마자 알파벳도 모르는 자녀들도 있었고 특히 남아아이가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업 그리고 주택 마련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결혼도 어려울 것이란 불안감을 지니고 있었다. 특례 입학으로 대학에 진학해도 경쟁력이 남한 아이들보다 취약하여 취업 시장에서 도태된다고 예측했다. 또한, 탈

북민이라는 낙인과 지위가 손자에게 대물림될 것을 걱정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게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좋은데 남한에서 맨날 그러잖아. 금수저, 은수저 이게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식, 손자새끼까지 이어지면···, 근데 8, 90%는 그렇게 될 것 같아···”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들은 남한 입국 초기에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한다. 자신은 물론, 자녀들 역시 모진 고생을 하고 사선을 넘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후발 주자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10>의 자녀는 남한 학생들보다 몇 배의 노력했지만, 상위권 대학에 가지 못해 좌절을 경험했고 자녀들은 남한 아이들에 비해 공부를 못한다는 상대적 좌절감 때문에 점차 꿈을 잃어간다고 했다. 이렇듯 참여자들은 물론 자녀들도 초기의 꿈은 사라지고 희망 또한 잃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애는 머리가 나쁘지가 않아. 아, 좋은 편인데, 공부할 때 초등학교 땀대도 12시까지도 막 해. 중학교 들어가니깐 진짜 옆에서 보기에 불쌍하고···. 힘이 없어서 중간에 쓰러지면서 공부했는데 그래도 맨날 20등이야. 그래도 안 되니깐 통곡을 하고. 그럴 때 괜히 왔나 생각 들지···” (연구참여자 2).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그들이 초기에 구성한 한국 사회에서의 꿈이 점점 퇴색되고 멀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멀어지는 희망으로 범주화했다.

④ 교육 주변인

연구참여자들과 그의 자녀들이 한국에 온 후, 가장 경악한 일은 남한의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운다는 것이었다고 구술했다. 한국의 중산층 아이들은 선행 학습이 문화가 되었고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은 물론 기본적인 영어와 수학까지 선행 학습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들을 비유하자면, 30m, 50m 뒤진 교육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7>의 자녀는 북한이탈 주민 특례입학 제도를 통하여 비교적 쉽게 진학했다. 하지만 공대생이었던 그는 영어와 수학 실력이 부족하여 진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우리 애는 운이 좋아서 우리 애들 같은 경우, 혜택을 주잖아. 그걸로 대학을 갔는데 대학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애가 수학도 못 하고 영어 못하고···. 큰 애는 남한 애들로 보면 고1 정도에 왔는데 중국에도 잠깐 있었지. 맨날 못 따라가는 거야.” (연구참여자 7)'

북한 이탈 주민이나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해 원적 학교와 대안학교를 다닐 수 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 학교도 존재한다. 자녀를 위해 지방에 있는 대안 학교에 보냈지만 유배지에 보내는 느낌이 들었고 대안학교와 원적 학교를 오가는 자녀는 원적 학교에 출석을 하면 같이 밥 먹을 친구들조차 없었다고 구술했다. 학교는 이들의 학력 신장보다는 적응에만 중점을 두었다고 했으며 이러한 교육 구조는 학력을 더욱 퇴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학교는 좋은데 뭐 애들이 워낙 들쭉날쭉하니깐.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추 줄 모르죠. 공부는 그냥 형식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적응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것도 고맙죠. 근데 남한 아이는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애는 저러고 있으니깐, 처음에 올 때도 뒤처져 있었는데 인젠 점점 불안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교육의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의 중심에서 벗어난 주변인으로 판단했다. 이를 교육 주변인으로 범주화했다.

⑤ 문화적 충격

중국은 물론 북한과 남한의 교육 시스템은 판이하다. 교육 방식이 다를 뿐 아니라 자신들이 북한에서 받은 교육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없었다. 남한 엄마들의 교육 방식을 따라가고 싶었으나 이 역시 불가능했다. 북한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던 <연구참여자 5>는 자녀를 직접 가르치고자 했으나 수학 교과서를 펼친 순간 포기했다. 수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 방식조차 이해하기 힘들었다.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래도 북한에서는 대학을 나왔으니깐. 김일성 종합대학은 아니지만, 웬만한 대학이에요. 과외도 비싸고 내가 직접 가르치고자 그래서 책을 사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곤 했죠. 교과서를 펼친 순간, 포기했어요. 수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아이가 풀어야 하니깐...”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습득한 것들이 무의미할 때 심리적 위축이 매우 컸다. 특히 그들의 학력과 기술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남한의 세계화 교육 시스템은 그들이 배운 러시아식 또는 중국식 교육 시스템과 매우 달랐다. 그간 배웠던 주체사상이나 마르크스주의 또한 자녀들의 공부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고 남한 생활과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폐기할 수 밖에 없었다.

“하나도 쓸모가 없어. 자격증도 제도가 다르나...; 공부도 그래. 쓰레기통에나 버려야지! 나도 어리병병한 데 애들은 어떻겠어.” (연구참여자 2.)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남한과 북한의 교육환경 차이로 인해 혼란을 겪었고 이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문화적 충격으로 범주화했다.

(3) 현상

① 과거로의 회기 심리

연구참여자들은 남한 입국 초기, 월등하게 높은 남한의 복지 수준에 만족했으나 자녀의 공부 문제가 대두되면 북한을 그리워했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북한은 토대 즉 출신 성분에 의하여 직업은 물론, 학교 선택도 제한받지만, 적어도 과도한 교육비용이 지출되지 않는다. 자녀의 교육만큼은 돈이 들지 않는 북한이 좋았고 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구술했다. 이는 북한을 그리워한다기보다 남한의 치열한 교육 경쟁 구도 속에서 낙오되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자녀 중 북한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남한 애들이 공부에 목숨(연구참여자 2, 6, 10)을 건다고 하였다

“우리 애들은 남한이 좋다고는 이야기해요. 학교에 가면 밥도 주고 북한 선생님들처럼 아이를 때리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그래도 공부 공부하니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남한처럼 강조하지 않아요. 공부 못해도 길이 있으니까. 북한이 그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연구참여자 10)

연구참여자들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사회적 기호가 편견과 연결된다고 구술하기도 했다.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합격한 자녀는 남한 학생들에게 정원을 깎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연구참여자 3>의 경우 사교육을 시키지 못했음에도 노력하여 좋은 성적을 내자, 개발에 탐 낫다는 욕을 먹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특히 가정교육을 중시했다. 남한 학생들의 경우 사소한 잘못이나 일탈로 평가받는 행위도 북한이탈 주민에게는 과도한 낙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학교 공부에는 뒤쳐졌지만 인성교육을 중시했다. 그런데도 학교교육의 부적응, 사소한 실수도 가정교육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을 목격했다.

“우리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부모나 애들이나 다 모두 엄청나게 욕을 먹어.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교육을 열심히 했어. 요즘 남한 애들은 가정교육 거의 없잖아. 예의도 모르는 애들도 많고, 공부 공부하니까... 우리

애가 학교 가서 친구한테 욕을 했나 봐. 그랬더니 다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들었어. 요즘 애들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애 편드는 것이 아니라 당하다, 당하다 한 욕인데도 그래.”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우려하여 자신의 존재를 감춰야만 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학교에 오는 것을 기피했다. 북한 출신 엄마가 창피하다며 학교에 오지 말라는 아이도 있었고 남한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성적이 떨어지자 자신을 남한으로 데리고 온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존재 자체를 감출 수밖에 없었다.

“착한 앤데 공부는 죽어라고 해도 안 되고 공부 못한다, 집이 가난하다, 부모가 북한 출신이다, 이래갖고 학교에서 요즘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데 애는 그래요? 왜 나를 여기에 댔고 왔냐고... 북한에 있었으면 이러진 않을 거라고 하긴 했어요.” (연구참여자 3)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지위로 인해 다양한 편견을 경험했고 자녀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또한 자신을 감추거나 과거를 회귀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이를 과거로의 회기 심리로 범주화했다.

② 인위적 현실 망각

현재 북한이탈 주민은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함께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대학 특례 입학, 임대주택 제공, 한시적 기초생활 수급자 지위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감사했다. 북한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대우였다. 그런데도 이면에는 낙인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북한 출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자녀들에게 수치심을 갖게 했고 특별전형은 양날의 검이었다. 그것은 배려와 특혜인 동시에 낙인으로 경험되었다.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 동네 사람들도 관심을 써주는데 고마운 건 맞는데, 피해의식은 진짜 아니에요. 그게 낙인으로 된다는 거죠.”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에게 남한은 기회의 나라이고 공부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위로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부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는 자기변명이나 위안에 불과했다고 구술했다.

“공부 못해도 잘 살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보면 공부 못해서 잘 된 사람이 없어요, 남한에 와서 들은 이야기지만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재벌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건 옛날이야기고 지금 남한에서 사업해서 돈 잘 버는 사람, 부모가 하던 거 물려받은 거, 창업 한 사람들도 다 명문 대학을 나왔다는데 애들한테 말은 그렇게 해도 현실은 그러니깐…” (연구참여자 9)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나름의 이유와 분석을 통해 공부 이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는 의미를 구성했지만, 인위적인 의미 구성을 통해 현실의 고단함을 잊고자 하는 경험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인위적 현실 망각으로 범주화했다.

(4) 중재적 조건

① 소수자 연대

북한이탈 주민들의 공동체는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사회적 자본이었고 자신의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자원의 공급처, 정서적 지지의 원천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 간의 모임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고 <연구참여자 10>의 대학생 자녀는 스스로 무급 과외 교사를 자청하기도 했다.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지 않았지만, 참여한 자녀는 롤 모델을 찾아 희망을 품었다고 구술했다. 특히 탈북민 학생들 간에 모임은 자신들만의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북한에서 온 아이들끼리 뭉치면 사고가 난다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애들끼리 뭉치면 사고가 나기도 하죠. 애들끼리 뭉치니깐 힘이 되나 봐요. 우리 애는 혼자 풀 죽어 학교 다니다가 힘이 없었는데 모임하면서 좋아졌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란 생각을 자주 했어요.”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들의 주거지는 대부분 서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똑 같이 가난하지만, 자녀의 공부를 봐주는 이웃도 있었고 진정으로 아이들에 공부와 미래를 걱정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2>의 자녀의 경우, 남한에 온 후 일탈을 반복 했지만 이웃에 거주하는 노인은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 일깨우는데 노력했다. 연구참여자의 구술에 의하면 이웃 노인의 도움으로 자녀는 방향을 멈추고 자기의 길을 모색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살아보니 똑 같아. 중국도 그렇고 돈 있는 부자들은 입으로만 걱정하지만 마음으로 걱정하지 않아. 남한도 똑 같아. 탈북민들이 좋은 동네 못 살지. 가난한 동네에 살지. 강남에 어떻게 살겠

어. 강남에 살라고 해도 못 살 것 같아. 다 어렵고 힘드니까. 가난한 동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지. 그것도 희망이 되고.” (연구참여자 2).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탈북민 단체나 지역 사회의 서민들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힘을 결집했고 그들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자녀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를 소주자 연대로 범주화했다.

② 개신교 공동체의 도움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개신교 교인이다. 중국 체류 당시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남한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다. 교회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이라는 딱지보다는 돌아온 형제로 대우받았고 친구와 교회의 도움으로 자녀들은 공부에 자신감을 얻어갔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연이은 일탈로 인해 남한에 온 의미조차 상실될 때쯤 교회 사모의 따뜻한 배려에 소망을 찾았고 자녀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지 않았다.

“사회에서는 맨날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그래요. 듣기 싫어요. 꼭 남한에 뭐 얻으러 온 거지 같잖아요. 근데 교회에 가니까 교회는 원래 그래요. 형제자매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보고 돌아온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반가웠는지 몰라요. 애들 교육하는데 부모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돌아온 형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용기가 막 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남한의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았지만, 교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탈북민의 ‘탈’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고 무조건 지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의 자녀의 경우 교사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예배가 끝난 후 교사는 학생지도를 명분 삼아 따로 불렀고 떨어진 학습을 지도하기도 했다.

“우리 애 선생님은 반 애들한테 그런데요. 탈북민 그딴 말 하지 말아라! 그냥 이름 불러라. 그 선생님은 아마, 굉장히 힘이 있어나 봐요. 우리 애 반에서 ‘탈’자도 못 꺼 낸데요. 근데 알고 보니 교회 집사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교회와 교사들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낙인감과 실패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를 개신교 공동체의 도움으로 범주화했다.

(5) 작용/상호 작용

① 낙관적 기대 속에서 도전

중재적 조건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자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강조했다. 부모와 함께 사선을 넘었기에 남한 아이들보다 공부는 뒤떨어지지만, 생존력은 강하다고 구술했다. 아이의 꿈을 꺾다가도 인정을 해주자, 아이는 변했다. 특히 낙심한 자녀에게는 남한은 북한 보다 모든 환경이 좋다고 격려해 주기도 했다.

“우리 애가 남한 애들 흉내를 내면서 탤런트가 된다는 거예요. 연예인…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다가 되든 안되든 그건 나중 문제고 그래 해봐라. 유명한 탤런트 될 거다. 그랬더니, 아이도 마음을 바뀌더라고요.”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 현실을 받아들였다. 자신들의 자녀가 남한 학생들보다 두뇌와 재능이 뒤떨어지지 않지만, 후발주자라는 것을 인식했고 특히 성적이 떨어진 자녀들에게는 그 대안을 제시했다. 중국 체류 시에는 남들보다 앞서가길 바랐지만, 한국에서는 자신의 꿈을 키우길 바랐고 16살 때 남한에 온 <연구참여자 3>의 자녀는 한국 학생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남한 학생이 공부에 온 힘을 쏟는 중학교 시절, 자녀는 중국에서 떠돌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자들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대학이 필수라는 것이 아님을 인정했고 공부를 외면하는 아이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권유했다. 대다수 연구참여자 3는 남한에서는 남한 학생들과 경쟁하기 어렵지만, 통일되어 북한으로 돌아가면 자신들은 우월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믿었고 통일을 대비하여 컴퓨터, IT 등 직업 개발과 교육에 힘을 쏟기도 했다.

“여기서는 처음 무조건 노력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현실을 봐야. 그래서 우리 집은 통일 된 후에 다시 북한으로 가려고 해요. 여기서 천만 원이면 아마, 북한에서는 10억 가치는 있을걸. 남한이 기술이 뭐고 다 앞서가니까 여기서 배운 기술은 엄청난 기술이 될 테니. 남한 아이들은 컴퓨터를 밥 먹듯이 하니깐 애한테는 컴퓨터 디자인하라고.”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한계 속에서 방향을 수정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틈새 영역에서 경쟁력을 개발했다. 중국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중국어에 능통하다.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았고 남한 학생들이 기피한 영역, 즉 기술 영역에서 자립할 준비를 하는 한편, <연구참여자 8> 경우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자본을 모으기도 한다. 그리고 자녀 역시 저축을 하고 있다.

“우리 애가 수학 영어는 못 해요 그래도 중국에서 한 5년 살았으니 까 중국어는 무지하게 잘하죠. 대학 교수보다 더 잘할 걸요. 좋은 대학교 중국어과 같은데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아무 대학 중국어과에 가서 중국어 전문가가 되든지, 남한 애들 보다는 이게 장점이니깐...” (연구참여자 6).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적 기대 속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자신을 극복하는 경험으로 판단했다. 이를 낙관적 기대 속의 도전이라고 범주화했다.

② 강력한 생명력의 자본화

연구참여자들은 힘들 때마다 탈출 경험을 떠올리고 이를 자녀들에게 전달했다. 남한에서 겪는 공부나 생활의 어려움은 탈출할 때 겪은 어려움에 비해 미미하다고 구술했고 중국 체류 경험이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에서의 체포, 인권 유린 등을 떠올렸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탈북한 후 송환되어 총살을 당한 주민들도 있었다. 이렇듯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선을 넘었기에 공부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탈출하고 처음 한 두 번은 살려주는데 노동교화소로 끌고 가서 죽으라고 고생시키죠. 또 어떤 때는 총살 당한 사람도 있어요. 애가 힘들 때마다 같이 얘기해요. 잡히면 총살이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공부가 뭐가 어렵냐 엄마도 열심히 일한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애는 맞아, 그렇게 해요.” (연구참여자 10)

사선을 넘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연적으로 인내심이 축적되어 있었다. 북한, 중국, 한국에서 원치 않았지만 몸에 밴 인내심은 공부 낙오자라는 낙인을 벗어 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그 인내는 성적이라는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연결됐다. 남한 학생들을 추월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의 어려움도 지금까지 이겨낸 어려움에 비하면 수월하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아요. 엉덩이가 무거워야죠. 근데 그게 나도 그랬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겠어. 그래도 중국에 있을 때, 남한에 넘어 올 때, 그거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10)

연구 참여자들에게 내핍 생활은 환경이 강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물자가 부족한 북한과 중국에서 내핍으로 생활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부정적이었지만 결과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내핍

생활은 인성교육과 삶의 지혜로 바꾸었다. 학교 공부는 뒤쳐질 수 있어도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도 했다. 젊어서 가난은 돈 주고도 산다는 격언을 떠올리며 절약하는 습관을 통해 더 큰 나무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가정교육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금은 절약해서는 부자가 못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다 부자가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절약하고 절약하고 그러면 작은 부자는 되겠지. 한국에 온 후 한국에 오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동안 못 먹고 못 썼으니까. 아껴 써요. 이만하면 풍족하다. 애들도 몸에 뺏어요. 무슨 일일 해도 성공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연구참여자 4)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북한, 중국을 전전하면서 생명을 보존했던 강한 용기와 인내심을 교육 자원으로 발전시킨 경험으로 판단했다. 이를 강한 생명력의 자본화로 범주화했다.

(6) 결과

가능성의 기획

연구참여자들은 초기에는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을 했으나 이러한 것들로부터 탈출했다. <연구참여자 6>의 표현처럼 흙수저가 금수저는 될 수 없지만, 열심히 닦으면 스테인리스 수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들에 의하면 자녀들의 미래는 성공도 실패도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에는 우리 애들이 커서 낙오자가 되고 적응을 잘 못 할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그런 건 아니에요. 미리부터 망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 애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다 보니 마음도 바뀌게 되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 남한 사회문화에 일찍 적응한 자녀들을 보며 불안했으나 한편으로는 자녀들에게 배우는 것도 있었다. 공부는 뒤쳐지고 풍족한 용돈은 쓰지 못했지만 주눅 들지 않았고 현재에 행복하면 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성공보다 행복을 추구하는 자녀들에게 배우기도 했다. 특히 남한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작동하지만, 북한보다는 희망이 있는 ‘도전의 땅’이라는 인식을 했고 희망이 있기에 후발주자도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촉진시켰다.

“애들이 철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공부도 그렇지만 행복행복 그래요. 우리 행복이 뭔지 몰랐는데 가만히 생

각해 보니 그게 맞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배우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고 공부를 못해도 행복해도 되니까... 불안이 슬슬 없어져요.” (연구참여자 8)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미래를 과거와 현재의 기계적 연결이 아닌, 열려있는 가능으로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향해 자신과 자녀의 삶을 디자인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가능성 기획으로 범주화했다.

2. 축코딩(axial coding)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구성한 범주들을 재조합하고 그 관계를 밝히는 과정이다. 연구자들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현상(phenomenon),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action/reaction) 그리고 결과(consequence)의 패러다임 모형에 재배열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패러다임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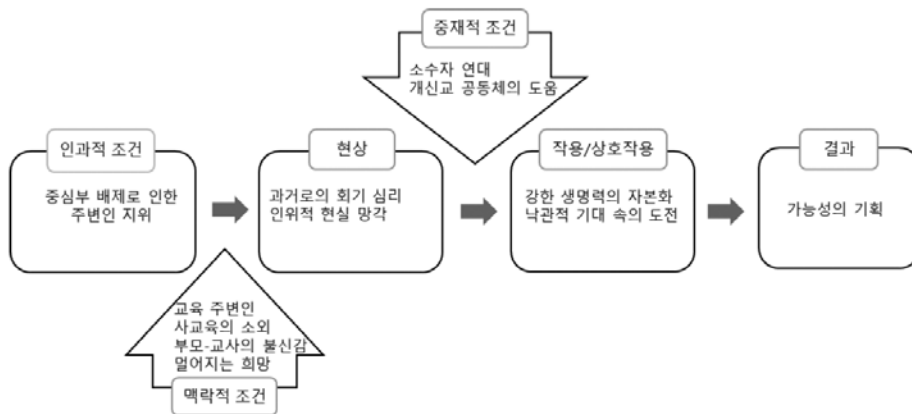


Figure 1. The Relationships between Categories and Model of Paradigm Structure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이란 현상에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사건이나 정서, 심리 상태, 행동 등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현상은 과거로의 회기 심리와 인위적 현실 망각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들이 대학 지상주의인 한국 사회에서 경쟁 스트레스에 휩싸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지역 사회의 사람들과 소통이 단절되고 탈북민들을 낙인찍는 사회 구조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중심부 배제로 인한 주변인 지위를 인과적 조건으로 했다.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이란 현상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조건으로써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사교육에서 소외되었고 이러한 사교육의 결핍 또는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공교육에 기대를 걸었으나 이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희망은 더욱 멀어졌고 특히 자기들만의 고립된 영역에서 남한 학생들과는 다른 조건에서 고군분투 하였기에 과거로의 회기 심리와 인위적 현실 망각이라는 현상을 더욱 강화하는 조건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사교육 소외, 부모-교사 간의 불신감, 멀어지는 희망, 교육 주변인, 문화적 충격을 맥락적 조건으로 했다.

(3) 현상

현상(phenomenon)이란 지금, 여기서 무엇이 벌어지는가의 문제로 가장 중요한 정서나 행동, 사고방식 등은 무엇인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근거이론 연구의 핵심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과거로의 회기 심리와 인위적 현실 망각이 현상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이 인생을 결정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피로감과 경쟁 스트레스, 탈북민 낙인 등으로 인해 부정적 경험을 했고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는 억지 위안을 희망으로 삼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퇴행적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과거로의 회기 심리와 인위적 현실 망각을 현상으로 했다.

(4)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이란 개인들이 현상에 대처하는 행동, 전략, 정서, 마음가짐, 태도 등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참여자들은 과거로의 회기 심리와 인위적 현실 망각이라는 부정적 현상이 발생했지만, 탈북 과정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강한 생명력을 발판으로 삼았다. 또한 절망 속에서도 자녀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 북한이탈 학생들의 적성 등에 맞는 틈새 영역 등을 개발하였다. 한계 속에서도 방향을 수정했으며 도전으로 이어갔다. 이에 낙관적 기대 속에 도전, 강한 생명력의 자본화를 작용/상호작용으로 했다.

(5)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이란 작용/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이를 강화, 조장하거나 약화, 후퇴시키는 보다 구조적인 동시에 광범위한 조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 참여자들은 부정적 현상을 경험했지만, 개신교 공동체, 교사, 탈북민 등의 도움을 받아 자립 의지를 고추 세웠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힘의 동력으로 삼았다. 이에 소수자 연대, 개신교 공동체의 도움을 중재적 조건으로 했다.

(6) 결과

결과(consequence)은 작용/상호작용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연구참여자들 개인의 상황과 조건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 등도 포함된다. 연구참여자들은 강한 생명력을 자본화하고 낙관적 기대 속에 지속적인 도전을 하여 자신의 미래가 우울할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을 내려놓고 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생활양식을 구성함으로써 자신을 가능성 있는 존재로 의미를 구성했다. 따라서 가능성의 기획을 결과로 했다.

3.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선택코딩은 이야기 윤곽 기술과 핵심범주 구성으로 이뤄진다. 핵심범주는 연구에서 나타난 모든 범주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범주로서 핵심범주를 기반으로 하여 근거이론 연구는 형식이론(formal theory)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핵심범주를 구성하는 데는 메모의 활용, 범주 간에 관계 도표 그리기 등의 기법이 있으나 어떠한 기법으로 접근하여도 모든 범주를 통합 할 수 있는 범주가 출현해야 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범주를 중심으로 이야기 윤곽을 먼저 기술하고 이를 도표로 구성 한 후 핵심 범주를 나타내고자 한다. 선택코딩은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창시자인 Glaser(1992)의 하면 이론적 코딩에 해당한다. 구성주의 이론주의 연구자 Charmaz(2016)도 근거이론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이론적 코딩을 제시했다. 연구자 역시 정밀한 이론 생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 윤곽을 기술하고 핵심 범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이야기 윤곽 기술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탈출하고 남한에 정착했지만, 사회적 조건과 상황을 불문하고 공통적인 것은 코리안 드림이었다. 개인의 자유가 철저하게 구속된 북한과는 달리 남한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보장된 나라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코리안 드림은 자신보다 자녀에게 맞춰져 있었다. 그들은 남한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비전을 품었지만, 한계가 있음을 인식했다. 남한 주민들보다 열악한

자본과 인적 네트워크 등은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받아 들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만큼은 무한한 미래가 열려있다고 믿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삶보다는 자녀들의 삶에 의미를 두었고 교육을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자녀들이 북한처럼 학교 공부에 충실하고 노력한다면 학업 성적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사회의 이면에 많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은 공교육보다는 철저하게 사교육이 지배하는 사회로 경험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사교육을 시키고자 했으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좌절했다. 또한 대학이 자녀들의 삶을 결정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전문직 종사자들만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경쟁과 사교육이 없는 북한을 그리워하는 반동적 정서를 표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들은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할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고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그들은 주변인 지위를 강제적으로 부여 받았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대학 특례 입학이 적용되지만, 이 또한 차별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고 남한 사회에 오기까지 생성된 강한 생명력을 일깨웠다. 초기에는 왜곡된 교육 시장의 구조 등으로 인해 퇴행적 현상도 있었지만, 북한을 탈출할 수 있던 용기와 자신들에게 닥쳤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한 지혜와 도전 정신 등을 자본으로 삼았다. 연구참여자들은 특히 탈북민 공동체 속에서 내적인 결속을 다졌고 교회 공동체 돌봄을 받게 되었다. 특히 교회 공동체 돌봄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자신과 자녀의 꿈을 새롭게 만들어 갔다. 비록, 자녀들은 학교 교육에서 남한 학생들보다 뚜렷할 성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했고 미래에 대한 자녀의 꿈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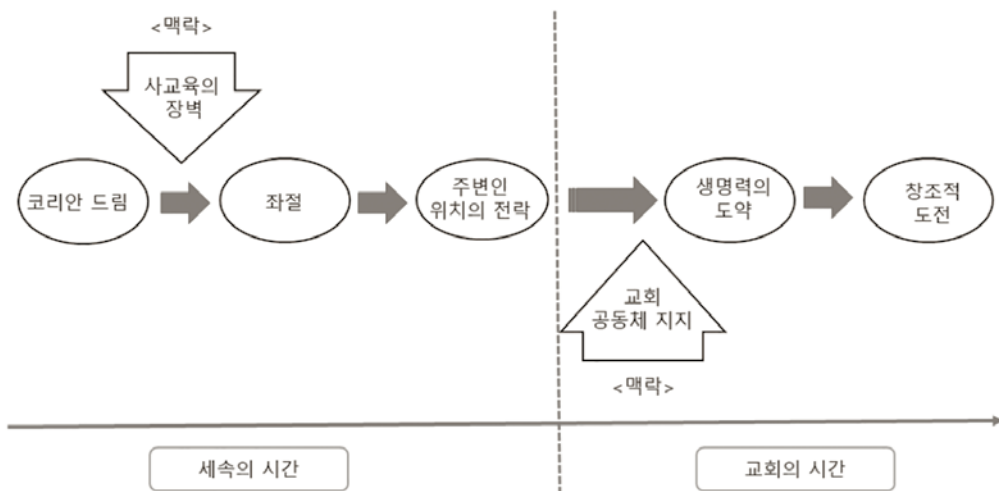


Figure 2. The Diagrams Using Story Dictation and Memo

는 다양한 어려움과 차별 속에서도 북한 보다 기회가 열려 있고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의 확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핵심범주

이야기 윤곽 기술을 토대로 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모든 경험을 아우르는 핵심 범주는 다음과 같다. 형제의 땅에서 주변인 지위는 있었으나 또 다른 차별을 딛고 희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가능한 존재로서의 자기기획으로 상정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남한은 형제의 땅이었지만, 주변인 지위를 강제로 부여받았고 또한 중심부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 특히 자녀들은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었고 사교육으로부터 소외되었다. 또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저하되었으며 희망은 사라졌다. 이와 같은 경험은 형제의 땅에서 받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의 강한 생명력을 자본화했고 낙관적 기대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이러한 도전의 시작은 희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희망의 재구성은 교회 공동체의 동봄과 소수자 연대의 지지도 있었다. 이렇듯 희망을 자기 것으로 만든 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자녀들을 가능한 존재로 의미화했다. 이러한 의미 구성은 주체적인 자기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 주민들 중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개신교 교인들의 자녀 교육 경험에 의한 근거연구이론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참여자들은 남한에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착했으나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했다. 특히 사교육 위주의 한국 교육 환경에서 많은 좌절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미래보다는 자녀들의 미래에 희망을 걸고 한국 사회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교육이란 장벽에 막혔다.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차별적 자녀 교육 경험은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문화의 차이 그리고 남한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등은 사회적 교육의 차별은 물론 자신들의 꿈을 철회하는 현상이 일어났다(오원환, 2019;이수정, 2019;손명희, 2018;이재관, 김성배, 2021). 이로 인해 북한 이탈주민들 중 제 3국으로 이주를 하거나 난민 자격을 가장 하여 호주, 영국, 미국 등으로 이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경험, 소수자 집단에 대한 낙인화, 그들의 욕구에 미흡한 사회서비스 그리고 자녀 교육문제, 자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거론했다(손명희, 2018: 155-157;이재관, 김성배, 2021: 164-166). 본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차별은 희망의 철회와 함께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

어 하는 심리가 발견 되었다. 하지만 앞선 선행연구에서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 부분은 교회 공동체의 지지이다.

북한 이탈주민들은 대부분 중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한다. 하지만 중국은 자유가 아니라 체포될지 모르는 불안과 중국인들의 노동 착취, 인권유린 등으로 인해 북한 못지않게 힘든 경험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물적, 정신적 지원을 하여 남한으로 인도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박병애, 김성배, 2020: 704-709).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인 동시에 북한이탈 주민들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다.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 남한 사회적응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동시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박병애, 하충엽, 2019: 189-190). 교회 공동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데 있어서 자양분을 공급하는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인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구성한 사람들도 존재하고 더 나아가 목회자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양민숙, 2018, 박병애, 2020). 교회 공동체는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통합을 촉진하는 중심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 개신교의 북한 선교, 북한 이탈주민 선교는 교세 확장을 위한 공격적인 메시아니즘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 그리고 통합을 지향하는 개신교 정신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녀들에게 품었던 희망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다시 품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강한 생명력을 자본화하고 삶을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실천했지만, 여기에는 교회 공동체의 지지가 존재했다. 교회 공동체는 참여자들의 돕는 손이 되었고 꿈을 다시 꾸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치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중국에서 개신교를 접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참여자들은 남한 입국 후, 하나원에서 방문한 목사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간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참여자들은 탈북민 공동체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이렇듯 그들의 교회에 출석한 시기와 계기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사회에서 느끼지 못한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받은 도움은 목사나 전도사 그리고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도움도 받았다. 교회 구성원이 하나의 몸이 되어 북한이탈주민들을 도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교회는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중국에 경우, 개신교를 전파한다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되어 체포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를 하고 있고 그 주된 대상은 북한이탈주민들이다(조은식, 2016: 415-417; 하광민, 2019: 378-383).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는 북한 선교의 거점인 중국 선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우리 땅에 들어 온 북한이탈주민들을 품고 이들을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문 사역자 양성도 필요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의 삶의 목적이기도 한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지지와 남한 교인들의 통합은 그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낮아진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강화시켜 성공적인 사회 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승리하는 길에 교회가 든든한 후원군이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규보(202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트라우마와 긍휼의 실천. **복음과 실천신학**, 57(-), 9-17.
- [Kim, K. B. (2020). Social Trauma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Practice of Compassion. *The Gospel and Praxis*, 57(-), 9-17.]
- 김미정, 정계숙(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부모의 양육 이야기. **兒童學會誌**, 28(1), 71-94.
- [Kim, M. J. & Chung, K. S. (2007). Parenting of Young Children by North Korean Parents in South Korea: A Qualitative Study. *Children's Journal*, 28(1), 71-94.]
- 김성남, 양옥경(2015).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자녀양육과 교육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2(1), 5-37.
- [Kim, S. N. & Yang, O. K(2015).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Social Welfare Practice and Research*, 12(1), 5-37.]
- 김영하(2010). 다문화사회와 새터민 청소년의 교육문제. **윤리교육연구**, 0(21), 223-24.
- [Kim, Y. H. (2010). Education Problem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Saeteomin Teenagers. *Ethics Education Research*, 0(21), 223-24.]
- 김예영 (2012). **북한이탈 어머니의 영유아 자녀 양육 경험**.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Kim, Y. Y. (2012). *The Early Childhood Caring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 University, Seoul, Korea.]
- 김윤나 (2010).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교육적 함의. **통일교육연구**, 7(1), 190-10
- [Kim, Y. N. (2010). Adaptation Flexibility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 *Unification Education Research*, 7(1), 190-10.]
- _____ (2012). 청소년유해매체관련연구 메타분석을 통한 환경중심모델 기반 청소년성보호 대책. **소년보호 연구**, 19(-), 95-127.
- [Kim, Y. N. (2012). A Study on the Meta-Analysis through Youth Hazardous Media Related Research Based on Environmental Protection Model. *Korean Juvenile Protection Review*, 19(-), 95-127.]
- _____ (2013).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법과인권교육연구**, 6(2), 21-21.
- [Kim, Y. N. (2013). Requirements and Policy Suggestions on the Children Educ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Law and Human Rights Education Research*, 6(2), 21-21.]
- _____ (2014).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에서의 자녀교육 경험에 관한 민속지학적 분석. **청소년시설환경**, 12(1), 77-8.
- [Kim, Y. N. (2014). Ethnography Methodology of the Children Educational Experience North

-
- Korean Female Defectors in South Korea, *Youth Facility Environment*, 12(1), 77-8.]
- ____ (2016). 북한이탈청소년의 학업성취 향상 방안에 관한전문가의 평가. *少年保護研究*, 29(2), 33-7.
- [Kim, Y. N. (2016). A Study on the Study on the Expert's Voices from Academic Achievement Improvement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 *Korean Juvenile Protection Review*, 29(2), 33-7.]
- 김창희 (201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체성 변화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박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 [Kim, C. H. (2016). Grounded Theory : *An Approach on Identity Development of Public Social Worker*. Doctoral Dissertation. Sahmyook University, Seoul, Korea.]
- 김현철, 이향규, 한만길 (2015)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VI) - 학교, 사회 적응 과정 분석 및 정책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국무조정실.
- [Kim, H. C., Lee H. G. & H, M. G. (2015) *A Longitudinal Study of North Korean Youth Education (VI) - School and Social Adaptation Process Analysis and Policy Measures*, Office of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박병애 (2020). **탈북민 목회자의 생애사 분석을 통한 복음 수용성 연구**: Mandelbaum 분석방법론 적용.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Park, B. A. (2020). A Study on Gospel Receptivity of North Korean Defected Pastors : An Application of Mandelbaum Life History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____, 하충엽 (2019). 로젠탈(Rosenthal)의 생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한 탈북민 사역자의 복음수용 과정 분석. **선교신학**, 55(-), 157-195.
- [Park, B. A. & Ha, C. Y. (2019). An Analysis of the Conversion Process of a North Korean Defector Church Worker by the Rosenthal's Life History Research Methodology. *Theology of Mission*, 55(-), 157-195.]
- 백인옥 (2020). 탈북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양상과 해결방안 연구 : 대전·공주지역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연구**, 17(1), 53-80.
- [Baek I. O. (2020). A Study on the Non-Adaptation Pattern of School for North Korean Refugee - Focused on Daejeon and Gongju Area. *Unification Education Research*, 17(1), 53-80.]
- 손명희 (2018). 탈남한 탈북난민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 캐나다 토론토 거주자 사례를 중심으로. **北韓研究學會報**, 22(1), 139-181.
- [Son, M. H. (2018). A Study on the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Left South Korea : A Case Study of Residents in Toronto, Canada. *North Korean Studies Review*, 22(1), 139-181.]
- 양민숙 (2018). **북한이탈여성의 중년기이후 생애사 연구**-멘델바우만.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Yang, M. S. (2018). A Study on the Life Histories about an Adjustments to South Korea of

- Middle-Aged Females among North Korean Refugees.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오원환 (2019). 탈북민의 탈남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情)과 친절(親切)의 정치학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소통학보**, 18(1), 263-300.
- [Oh, W. H. (2019).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Refugee's Talnam Phenomenon and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olitics of Jeong (affection) and Kindness. *Journal of Speech, Media & Communication Association*, 18(1), 263-300.]
- 이수정 (2019). 재영 북한 이주민의 영국 난민 정책 경험과 그 함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3(2), 115-163.
- [Lee, S. J. (2019). North Korean Migrants' Experiences of British Refugee Policy and Its Implications. *Yonsei University Korean Unification Studies*, 23(2), 115-163.]
- 이재관, 김성배 (2021). 북한 이탈주민의 난민으로서의 탈남(脫南) 경험과 귀환 후의 삶에 대한 근거이론. **질적탐구**, 7(1), 135-170.
- [Lee, J. K. & Kim, S. B. (2021). A Grounded Theory Stud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s of Escaping from South Korea as Refugees and Life after Returning to South Korea -Focusing on Male Heads of Households in Their 50s and 60s. *Urnal of Qualitative Inquiry*, 7(1), 135-170.]
- 이윤진, 이정림, 김경미 (201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 [Lee, Y. J., Lee, J. R. & Kim, K. M. (2012). *An Investigation of Potential Policy Measures to Support Children of North Korean Migrants*. Childca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정다운, 김병수 (2019). 북한이탈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7(2), 29-59.
- [Jeong, D. U. & Kim, B. S. (2019). A Grounded Theoretical Study on the Career-Setting Processes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Focusing on Cultural Capital. *Korean Educational Issues Study*, 37(2), 29-59.]
- 정국인 (2014). **난임체험 여성의 레질리언스 연구 : 근거이론 접근**.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Jung, K. I. (2014). *A Study on the Resilience of Women who Experience Infertility : A Grounded Theory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정병호, 양계민, 이향규, 임후남, 황순택 (2007). **새터민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연구**. 교육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경기도교육청
- [Jeong, B. H., Yang, G. M., Lee, H. G., Lim, H. N. & Hwang, S. T. (2007). *A Study on the Preparation of Educa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 Social Adapta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Education Policy Research Results Report.]

- 정영선, 이승연 (2020). 북한이탈청소년의 대학진학준비 경험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5), 719-749.
- [Jung, Y. S. & Lee, S. Y. (2020). Exploring College Preparation Experiences of North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20(15), 719-749.]
- 정윤경, 김희진, 최지현 (2015).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경험과 적응의 관계. *社會科學研究*, 31(2), 157-182.
- [Jeong, Y. K., Kim, H. J. & Choi, J. Y.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and Social Adapt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Mediating Effects of Self-Support Efficacy. *Social Science Research*, 31(2), 157-182.]
- 정정애, 손영철, 이정화 (2013).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적응유 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統一 政策 研究*, 22(2), 215-248.
- [Jeong, J. E., Son, Y. C. & Lee, J. H. (2013). A Study on Defecting Motive and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Unification Policy Research*, 22(2), 215-248.]
- 장정숙 (2021)). 북한이탈부모의 교육관여 특성과 저해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1), 695-715.
- [Jang, J. S. (2021). Characteristics and Hindering Factors of North Korean Parental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Qualitative research.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21(11), 695-715.]
- 장정은, 최정숙 (2015). 북한이탈여성의 청소년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6(4), 375-419.
- [Jang, J. E. & Choi, J. S. (2015).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arenting Experience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ith Adolescent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6(4), 375-419.]
- 조은식 (2016). 탈북자를 위한 중국교회의 역할. *선교신학*, 41(-), 391-421.
- [Cho, Y. S. (2012). Roles of Chinese Church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ology of mission*, 41(-), 391-421.]
- 하광민 (2019). 북한이탈주민을 매개로 하는 북한선교 구도의 변화. *복음과 선교*, 48(-), 359-389.
- [Ha, G. M. (2019). The Changing of North Korea Missions that Rely Heavily on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Korea Evangelical Missiological Society*, 48(-), 359-389.]
- 한정우 (2016). 북한이탈주민의 기독교와의 만남에 관한 질적 연구. *다문화와 평화*, 10(2), 134-154.
- [Han, J. W. (2016). An Ethnographic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s of Christianity. *Multiculture & Peace*, 10(2), 134-154.]

- 홍승아(2013). 가족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제: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5(2), 173-205.
- [Hong, S. A. (2013). The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and Their Settlement Tasks: From the Family Perspective.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25(2), 173-205.]
- 홍주은 (2003). **북한이탈부모의 자녀양육 변화와 문제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Hong, J. E. (2013).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s parent's changes and problems in child-rearing*. Masters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armaz, K. (2014).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L.A: Sage.
- Charmaz, K. (2016). *The Power of Stories, the Potential of Theorizing for Social Justice Studies*. New York, NY: Routledge.
- Corbin, J. M. & Strauss, A. (2015).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Denzin, N. K.(1978). *Research Act, 2nd ed*. NY; McGraw-Hill
- Glaser, B. G. (1992). *Basic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Emergence vs. Forcing*.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Grinker R. R. (1998). *Korea and its Futures: Unification and the Unfinished War*. NY: Martin's Press.
- Karoly, L. A. & Gonzalez, G. C. (2011). Early Care and Education for Children i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Research on The Future of Children*, 21(1), 71-101.
- Kuzel, A. J. (1992). "Sampling in Qualitative Research", *Doing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Methods for Primary Care*(Benjamin, C. & William, L. M. Eds), Thousand Oaks, CA: Sage.
- Lancee, B. & Bol, T. (2017). The Transferability of Skills and Degrees: Why the Place of Education Affects Immigrant Earnings. *Journal of Research on Social Forces*, 96(2), 691-716.
- Liebow, E. (1993). *Tell Them Who I Am: The Life of Homeless Woman*, NY: Penguin.
- Lincoln, S. & Guba, G. (1985) *Naturalistic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 Padgett, D. K. (1998). Does the glove really fit? Qualitative Research and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43(4):373-381.
- Sebastian C. H. Kim, (2008) *161 Peace and Reconciliation-In Search of Shared Identit*. Oxfordshire : Routledge.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 Yuen, H. L. (2019). New Immigrant Parents' Experiences in a Parent Education Programme.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Years Education*, 27(1), p20-33.

통계청 (2021.3.3.).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통계”. <https://www.data.go.kr/data/15019661/fileData.do>
(검색일 2021.8.10.)

[Statistics Korea (2021.3.3.). “Stat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data.go.kr/data/15019661/fileData.do> (2021.8.10.)]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에서의 자녀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 개신교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A Qualitative Study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s in Children's Educ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Protestants -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Protestants

지상선 (성균관대학교)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10명의 북한이탈 출신 여성 어머니들이 참여했다. 자료는 일대일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구성했다. 연구자들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 코딩 결과 13개의 범주, 32개의 하위범주, 124개의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축코딩에서 인과적 조건은 중심부 배제로 인한 주변인 지위로 나타났고 현상은 과거로의 회기 심리, 인위적 현실 망각으로 나타났고 맥락적 조건은 부모-교사 간의 불신감, 사교육 소외, 멀어지는 희망, 교육 주변인, 문화적 충격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은 소수자 연대, 개신교 공동체의 도움으로 나타났고 작용/상호작용은 낙관적 기대 속의 도전, 강한 생명력의 자본화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가능성 기획으로 범주화했다.

연구의 주요 발견 점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교육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데 있어서 교회의 지지와 후원이 가장 큰 중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교회의 지지와 구체적인 접근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교회 공동체, 문화적 이질감, 인적자본